

한반도 탄소중립벨트(K-CNB: Korea Carbon Neutral Belt) 조성 및 운영의 상호수혜적 협력을 통한 기후·생태 위기 대응

2026년 03월 16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원장

이우균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이자 고려대학교 부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학계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환경한림원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리더로서 SDSN-Korea 공동회장 및 SDSN 리더십 위원회 (Leadership Council) 위원을 맡아 국내외 지속가능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와 남북 협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대형 기후 재난은 남북한 모두에게 실존적 위협이자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남북 협력이 주로 일방적인 물적 원조나 정치적 가변성에 종속된 이벤트성 사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와 특화된 상호 기술, 공통의 문제를 기반으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담보하는 상호 수혜적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의 국제적 쟁점인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은 이념과 체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사안이기에, 이를 매개로 한 기술 중심의 협력은 경색된 정세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신뢰 형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기후 및 토지 안보 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단발성 복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적 기후 및 토지 안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228500177#_enliple#_mobwcvr). 또한, 고려대학교는 국제대학 연합인 U21 NPC(U21 Nature Positive Coalition)에 가입하고, Nature Positive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전략적 요소들이 실제 삶의 터전에서 구현되는 실천 단위로서 토지 생태계 내에서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탄소 중립 마을 (Carbon Neutral Village)을 지정하고, 이를 벨트 형태로 연결하여 지역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탄소중립벨트(K-CNV: Korea Carbon Neutral Belt) 모델을 완성하는 전문가적 남북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실행전략: 비정치적 과학자 협력의 선행과 국제 플랫폼을 통한 실행력 확보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가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과학자 및 전문가 협력의 선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간의 직접적인 협력에 앞서 과학자 네트워크 기반의 트랙 2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와 같은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플랫폼을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중립적 공간에서의 기술 및 데이터 교류는 정치적 외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벽이 되는 동시에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특히, 남측의 기술력과 북측의 현장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은 남북이 주도하고 예산은 국제기구로부터 조달'하는 이원화 전략은 대북 제재의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과학자 및 전문가 중심의 기술적 파트너십은 결국 정치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한반도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 및 토지관리 리더십을 통한 한반도형 모델의 중위도 확산

한반도 탄소 중립 벨트는 단순한 남북 환경 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중위도 지역(Mid-Latitude Region)이 직면한 기후 위기와 물 부족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선도적이고 표준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검증된 이 통합 모델을 유사한 환경적 제약을 공유하는 중위도 국가들로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토지관리 질서를 주도하는 기후 리더십을 제도화할 수 있다.

이는 남북 간의 비정치적 신뢰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기후 및 토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환경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공동의 위험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는 상호 수혜적 협력 모델로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재 창출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